

규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9년 12월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연구

최 성 략*

현재 정부는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국민의 규제 신뢰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신뢰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규제 신뢰도는 개인의 사회의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 성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경향에 따라 규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국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성향이 규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등 성별 여부, 나이, 정부 신뢰, 국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견해, 기업에 대한 신뢰,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정치적 태도 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규제에 대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국가, 기업 등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 정도, 국제화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 개개인의 사회적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규제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 규제, 규제 신뢰, 정부 신뢰, 타인 신뢰, 기업 신뢰

* 제1저자(주저자)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 구로구 경인로 445 (haihabar@gmail.com)
접수일: 2019/12/23, 심사일: 2019/12/31, 게재확정일: 2019/12/31

I. 서론

역대 정부는 규제 개혁을 주된 화두로 삼고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여러 정부가 오랫동안 규제에 대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개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엄격히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고, 규제 혁신에 대한 홍보, 규제에 대한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설문조사 등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규제 신뢰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의 전문성이나 규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일, 규제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논의된다. 따라서 규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의 효율성, 규제의 공정성 등 규제의 내용을 정밀화하고자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규제에 보다 잘 반영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때는 이와 같은 규제의 다양한 방면에 대해 고려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신뢰도가 이러한 규제의 내용 및 공정성 등과 특별히 연관되는 않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규제의 정밀화를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최성락(2017)의 경우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하면 그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해 신뢰를 하고, 해당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으면 그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 규제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 규제 그 자체의 특성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규제 신뢰도는 개인의 사회의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 성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이 타인이나 조직,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규제에 대한 신뢰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이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경향에 따라 규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방법은 일반 성인 국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등을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성향이 규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규제 신뢰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규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 방법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신뢰의 유형

신뢰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 기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Arizti et al., 2010)을 의미한다. 다른 개체가 언급하는 약속 등에 대해, 그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 등이 신뢰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상대방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약속 등으로부터 불확실성이 제거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사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 이와같이 신뢰는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신뢰자의 기대로 볼 수 있다(이윤수, 2013). 신뢰는 각 개개인의 인식 상태나 감정 상태에 따라 모두 다르게 인식된다. 상대방이 같은 언행을 보이더라도, 각 개인에 따라 그 상대방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가 다르다. 즉 신뢰는 각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장용진, 2013).

이러한 신뢰는 개개인에 대한 신뢰 외에 사회 조직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사회 조직에

대한 신뢰는 그 대상에 따라 크게 사회 신뢰, 정부 신뢰, 기업 신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신뢰 유형에 대해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사회 신뢰

사회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신뢰수준이나 그 밖에 신뢰와 관련된 다양한 시민사회의 특성을 의미한다(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자기가 소속된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사회 신뢰와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양수(2008)는 사회신뢰를 관료 신뢰, 대인 신뢰, 사회 신뢰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관료 신뢰는 사회 조직 중에서도 특히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이다. 중앙 부처나 국회 등 정부를 이끄는 관료 및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관료 사회는 앞에서 살펴본 정부 신뢰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리고 대인 신뢰는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지는 믿음의 정도이다. 자신 이외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믿는 정도로서 국민들 사이에 서로 믿는 정도, 신뢰감 등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신뢰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믿음이다. 사회 전체의 안정성 및 미래에 대한 긍정성 등과 관련된 신뢰이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신뢰는 Fukuyama(1995)가 'TRUST'에서 제시한 신뢰로서, 사회 자본과 관련된 공적 신뢰이다. 본인 및 가족, 친구 등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본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일반사람들,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어느 정도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사항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 여부가 사회 자본과 연관되는 신뢰이며, 이와같은 신뢰가 높을 경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지고 보다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예나(2016)는 사회신뢰를 사회적 자본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각 개인의 신뢰를 일반적 신뢰와 특별 신뢰로 구분하였는데, 일반 신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그리고 특별 신뢰는 개인 이외의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등에 대한 신뢰이다. 대표적인 사회 조직인 정부, 기업 등에 대한 신뢰는 사회집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별 신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반 신뢰와 특별 신뢰의 증대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신뢰는 사회적 자본과 연관되는데, 이는 개인간 사회신뢰가 정부 신뢰, 정책 및 규범 신뢰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도 높아질 수 있고 규범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높아진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면 시민활동도 믿을 수 있고, 이때 다양한 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시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정책 대응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 신뢰의 발달을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2) 정부 신뢰

정부 신뢰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믿는 정도로서, 시민 또는 국민들이 해당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단순히 정부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라, 정부와 정부의 기관들, 일반적인 정책과정 그리고 정치적 리더에 대한 신뢰성, 정부 기능이 효율적이고 공정한지 등등 정부 활동의 모든 면에 대해 지니는 신뢰도이다(장용진, 2013).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예나(2016)는 정부 신뢰는 단순히 정부라는 개체만을 신뢰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기능이나 역할 모두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행정부만이 아니라 의회, 사법부와같은 정부 기관, 정치와 같은 정치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모두 정부 신뢰에 포함된다. 이양수(2008)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 신뢰를 특히 정부가 수행하는 정부 역할 역할에 대한 신뢰로 보았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정도로 보았다. 또한 전대성·권일웅·정광호(2013)는 정부 신뢰를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부 기관의 구성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정부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와 정부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정부 기관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변경된다 하여 기관 신뢰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구성원에 대해 신뢰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변경되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변경된다. 외부적으로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성원에 대해 신뢰로서, 서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 기업 신뢰

현대 사회에서 정부 외에 가장 주요한 사회 조직으로는 기업을 들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특히 경영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많이 논의된다. 기업들은 사회의 주요한 제품 및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사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

기업에 대해 신뢰하는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일 매일 이용하는 개개인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즉 기업에 대한 신뢰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기업이 제대로 공급하는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박흥진, 2016; 박종철·이광현, 2009). 현대 사회인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는 사회 신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신뢰는 특히 사회적 자본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사회적 거래의 대부분은 기업이 담당하며, 따라서 기업에 대한 신뢰 증가는 사회적 거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거래 비용의 감소는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Ostrom, 1998), 따라서 기업 신뢰의 증가는 사회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 각 부문별 신뢰 간 관계

앞에서 살펴본 사회 신뢰, 정부 신뢰, 기업 신뢰 등은 서로 연관될 수 있다. 개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는 관계가 존재한다. 우선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는 정부 신뢰와 연관될 수 있다. 정부신뢰의 감소는 개인 간 불신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타인을 신뢰할수록 정부정책이나 법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사회신뢰는 국가기관이나 정책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정부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정광호 외, 2011).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와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서로 연관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신뢰도는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 및 성향에 의한 신뢰 차이가 정부 제도 등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 개인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사항은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세대간, 계층간, 정치 지지자들 간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박희봉 외, 2003).

Bjørnskov(2006, 2008)는 개인 간 신뢰도가 사회적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사회에서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높을 경우 사람들은 서로 잘 모르거나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상호작용을 하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즉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 간 상호관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개인의 신뢰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별로 혹은 문화별로 대인 간 신뢰 수준이나 정부신뢰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사회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거나,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대인 간 신뢰수준이 높을 수 있다(이우진·하솔잎, 2016). 결국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 개인간 신뢰는 서로 연관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신뢰는 높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뢰는 상호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정광호·이달곤·하혜수(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고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군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어, 이러한 신뢰 수준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예나(2016)의 논문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대인 신뢰의 정도와 지방정부의 청렴도로 살펴해보았는데, 지방정부의 청렴도는 제도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신뢰가 낮으면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낮아지는 관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청렴도 자체가 사회적 신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대인 신뢰는 사회적 신뢰와 연관될 수 있으며, 나이가 정부의 신뢰성에도 연관될 수 있다. 또한 장용진(2013)은 사회적 요인들인 사회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 신뢰가 높아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

또한 박희봉-이희창-조연상(2003)는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논의하였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일반적인 신뢰도와 정부 신뢰도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간 신뢰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3. 규제 신뢰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정부 신뢰 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규제 신뢰의 경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규제 신뢰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Putnam(2000)의 경우 규제에 대한 지지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에 바탕한다고 보았다. 정부 기관에 대해 신뢰할수록 규제 수준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한다고 보았는데, 규제 신뢰는 정부 신뢰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용규, 김지수(2014)의 경우에도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규제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용규김지수(2014)는 정부 기관 중에서도 특히 검찰 및 경찰 기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는데, 검찰 및 경찰에 대한 신뢰 정도가 사회적인 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규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경우 규제에 대한 믿음도 낮아지는 관계가 존재하였다.

Gunningham & Sinclair(2009)의 경우에는 사회적 신뢰도가 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개개인이 지니는 일반적인 사회적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규제에 대한 순응성, 집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규제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개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성락(2016a)의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가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여당을 지지하는가 야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규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긍정성, 규제의 사회적 효과, 규제의 기여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규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 지지자들보다 그 효과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최성락(2016b)에서는 연령이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규제 인식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는데, 연령대가 높을 경우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연령대가 낮을 때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정도가 높았다. 규제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국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규제의 공정성, 전문성 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등도 규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또한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가 등에 대한 정치적 태도 및 성별 등도 규제 신뢰에 대한 영향 요소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더하여 개인의 신뢰 정도 및 사회적 경향에 대한 다른 요소들도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전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남녀, 연령 등 인구 분포에 비례한 표본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 성인 국민 1,000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 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업체가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2월 상반기로서, 약 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대상자 기본 인적 사항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485	48.5
	여성	515	51.5
연령대	20대	221	22.1
	30대	239	23.9
	40대	273	27.3
	50대	267	26.7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2	.2
	중학교 졸업	1	.1
	고등학교 졸업	171	17.1
	2-3년제 대학졸업	164	16.4
	4년제 대학교 졸업	568	56.8
	대학원 졸업 이상	94	9.4
월평균 총소득	100만원 미만	28	2.8
	100-199만원미만	63	6.3
	200-299만원미만	147	14.7
	300-399만원미만	160	16.0
	400-499만원미만	202	20.2
	500-599만원미만	145	14.5
	600-699만원미만	103	10.3
	700-999만원미만	113	11.3
1,000만원 이상	39	3.9	
거주지역	① 서울	312	31.2
	② 부산	68	6.8
	③ 대구	49	4.9
	④ 인천	64	6.4
	⑤ 광주	22	2.2
	⑥ 대전	32	3.2
	⑦ 울산	19	1.9
	⑧ 경기	265	26.5
	⑨ 강원	11	1.1
	⑩ 충북	23	2.3
	⑪ 충남	25	2.5
	⑫ 경북	24	2.4
	⑬ 경남	38	3.8
	⑭ 전북	25	2.5
	⑮ 전남	15	1.5
	⑯ 제주	4	.4
	⑰ 세종	4	.4

설문조사 대상자 기본통계표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 485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221명, 30대 239명, 40대 273명, 50대 2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대 이상이 대상이 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2명, ‘중학교 졸업’이 1명, ‘고등학교 졸업’이 171명, ‘2-3년제 대학졸업’이 164명,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68명, ‘대학원 졸업 이상’이 94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 월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28명, ‘100-199만원미만’ 63명, ‘200-299만원미만’ 147명, ‘300-399만원미만’ 160명, ‘400-499만원미만’ 202명, ‘500-599만원미만’ 145명, ‘600-699만원미만’ 103명, ‘700-999만원미만’ 113명, ‘1,000만원 이상’ 39명이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이 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265명, 부산 68명, 인천 64명, 대구 49명으로 조사되었다.

2. 분석 변수

본 연구에서는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단순히 규제 내용 및 전문성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나 사회적 성향 등에 의해 규제 신뢰도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일반적인 신뢰 수준과 사회적 성향을 종속 변수로 하고, 규제 신뢰를 종속 변수로 설정한다.

개인의 일반적인 신뢰 수준은 앞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인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신뢰 등을 매개로 하여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이러한 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향후 미래에 대한 인식 경향에서 신뢰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향후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여기에서는 국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변수로 추가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경향에 대한 주요 변수로는 개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사회에 대한 인식 태도 등도 개인의 사회적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 정도와 주관적인 사회적 위치를 주요 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

경향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지니는가, 국제화에 대해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로는 개개인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거주 지역, 소득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분석틀

변수 구분		변수 상세		
통제변수		성별	남 1, 여 2	
		연령	만 연령	
		최종학력	최종 학력(①~⑥)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총소득(①~⑨)	
		거주지역	광역시(①~⑦), 기타지역(⑧~⑰)	
독립변수	신뢰수준	정부 신뢰	7점 척도	
		타인 신뢰	7점 척도	
		국가미래 신뢰	7점 척도	
		기업 신뢰	7점 척도	
	사회적 경향	사회활동 참여	7점 척도	
		사회적 위치	1: 상상 ~ 9: 하하	
		정치적 태도	여당 지지	1: 여당지지, 0: 기타
			야당 지지	1: 야당지지, 0: 기타
	국제화 긍정적	7점 척도		
종속 변수	규제 신뢰	요인 축약		

각 변수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월평균 총소득은 가족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족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면 1, 월 1,000만원 이상이면 9로 하여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및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등 광역시 지역인 경우 1,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2로 하여 구분하였다.

신뢰 수준과 관련된 타인 신뢰, 정부 신뢰, 국가미래신뢰, 기업 신뢰는 모두 7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경향의 사회활동 참여도도 7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사회적 위치는 하하에서 상상까지 총 9단계로 구분하고, 상상의 경우 1, 하하의 경우 9로 하였다. 숫자가 클

수록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적 위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태도의 경우에는 지지 정당을 조사하였는데, 여당 지지인 경우와 야당 지지인 경우를 구분하여 더미화하였다. 먼저 여당 지지의 경우에는 여당 지지인 경우 0, 기타인 경우 0으로 더미 변수화하고, 야당 지지의 경우에는 야당지지 1, 기타의 경우 0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적 태도 변수는 여당지지와 야당지지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국제화에 긍정적인 정도 및 종속변수의 규제 신뢰도는 7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종속 변수인 규제 신뢰는 정치 신뢰, 타인 신뢰와 달리 일반적인 질문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규제 신뢰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하여 이를 요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규제 신뢰와 관련된 질문들과 이 설문들의 크롬바흐 알파 값은 다음과 같다.

<표 3> 규제 신뢰 설문과 신뢰값

설문	측정 방법	성분값	크롬바흐 알파
규제 내용에 대한 신뢰성 여부	7점 척도	.918	0.926
규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7점 척도	.912	
규제의 공정성 여부	7점 척도	.905	
규제의 효율성 여부	7점 척도	.883	

본 연구에서는 위의 요인분석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1) 정부 신뢰의 경우 정부를 신뢰하는가, 타인 신뢰의 경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가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문 질문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규제 신뢰의 경우, 이러한 신뢰성 있는 질문 양식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IV.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먼저 독립 변수 및 종속변수의 주요 기술통계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평균값

구분		평균값	
독립변수	신뢰도	정부 신뢰	3.664
		타인 신뢰	3.898
		국가 미래 신뢰	4.236
		기업 신뢰	3.336
	사회적 경향	사회활동 참여	3.2
		정치적 태도	여당지지 32.6% 야당지지 18% 기 타 49.4%
국제화 긍정적		4.962	
종속변수	규제 신뢰	3.594 ²⁾	

본 설문조사는 7점 척도로 조사되었어 평균값이 4점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정부 신뢰도는 3.664, 타인 신뢰도 3.898, 기업 신뢰도는 3.326으로 일반적인 신뢰도 값이 평균인 4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 타인, 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4.236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더 컸다.

국제화에 대해서도 4.962로 다른 변수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규제 신뢰와 관련된 4개 변수들의 평균값은 3.594로 기본적으로 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2)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규제 신뢰값으로 다른 변수들의 값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여기에서는 규제 신뢰에 포함된 각 설문문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2. 각 변수 간 상관분석

먼저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제 변수 및 독립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018	1										
3	.134 ***	.014	1									
4	-.059 *	.115 ***	.163 ***	1								
5	.038	-.011	.014	.045	1							
6	-.009	.185 ***	.033	.074 **	-.035	1						
7	-.008	.223 ***	-.003	.150 ***	-.015	.411 ***	1					
8	-.045	.205 ***	-.007	.078 **	-.060 *	.659 ***	.451 ***	1				
9	-.020	.120 ***	-.097 ***	.091 ***	-.026	.252 ***	.361 ***	.264 ***	1			
10	-.030	-.037	.086 **	.076*	.001	.140 ***	.134 ***	.215 ***	.067 **	1		
11	.017	.025	-.134 ***	-.430*	-.042	-.109 ***	-.171 ***	-.097 ***	-.184 ***	-.150 ***	1	
12	.038	.039	.024	.050	.006	.317 **	.074 **	.272 ***	-.032	.090 ***	.040	1
13	.012	.055 *	-.035	.079*	-.005	.074 **	.090 ***	.104 ***	.160 ***	.002	-.091 ***	.074 **

1: 성별 2: 연령 3: 최종학력 4: 월평균총소득 5: 거주지 6: 정부 신뢰 7: 타인 신뢰 8: 국가미래 신뢰
9: 기업 신뢰 10: 사회활동 참여 11: 사회적 위치 12: 여당 지지 13: 국제화 긍정적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0.7 이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아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변수를 회귀분석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3. 모형 1 : 신뢰도 요소 분석

신뢰도 요소 분석 부분에서는 정부 신뢰, 타인 신뢰, 국가 미래 신뢰, 기업 신뢰 등 일반적인 개인의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독립변수는 정부신뢰도, 타인 신뢰도, 국가 미래 신뢰도, 기업 신뢰도이며, 종속 변수는 규제 신뢰도이다. 통제 변수로는 인적 사항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를 포함하였다. 이와같이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모형 1 : 신뢰도 요소 분석 결과

구분	규제신뢰		t	
	B	표준오차		
(상수)	-2.042	.207	-9.851***	
통제변수	성별	.160	.050	3.182***
	연령	-.006	.002	-2.399**
	최종학력	-.017	.028	-.591
	월평균총소득	-.015	.013	-1.136
	거주지	.016	.051	.311
신뢰도	정부 신뢰	.287	.023	12.667***
	타인 신뢰	.004	.026	.159
	국가미래 신뢰	.146	.025	5.806***
	기업 신뢰	.147	.025	5.836***
빈도	1000			
R제곱	0.402			
수정된 R제곱	0.396			
F 값	73.802***			

위 모형의 R제곱값은 0.402, 수정된 R제곱값은 0.396이었으며, F값은 73.802으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본 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로는 통제 변수 중에는 성별과 연령이었으며, 독립변수 중에는 정부 신뢰, 국가미래 신뢰, 기업 신뢰였다. 성별의 경우 계수 값이 0.016으로, 본 분석에서 이는 여자가 남성보다 규제 신뢰도가 높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규제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의 계수도 -로 나와, 젊은 층일수록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연령이 있는 층보다 더 높았다. 성별, 연령에 따라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 신뢰, 국가 미래 신뢰, 기업 신뢰가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정부, 국가 미래, 기업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이 규제에 대해서 신뢰하는 정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국가미래, 기업은 모두 계수가 양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정부 신뢰의 계수가 0.287로서 국가미래, 기업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국가미래, 기업 신뢰도 등도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정부 신뢰가 규제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수록 규제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4. 모형 2 : 사회적 경향 요소 분석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개인 신뢰도 요소에 사회적 경향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 본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 정치적 태도, 국제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모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기존 개인 신뢰도 요소에 추가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추가하여 규제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모형 2 : 사회적 경향 분석 결과

구분		규제신뢰		t	
		B	표준오차		
(상수)		-1.367	.330	-4.140***	
통제변수	성별	.161	.050	-3.191***	
	연령	-.005	.002	-2.068**	
	최종학력	-.025	.028	-.870	
	월평균총소득	-.014	.013	-1.121	
	거주지	-.132	.100	-1.325	
신뢰도	정부 신뢰	.271	.023	11.721***	
	타인 신뢰	.011	.026	.441	
	국가미래 신뢰	.136	.025	5.377***	
	기업 신뢰	.162	.025	6.342***	
사회적 경향	사회활동 참여	.015	.015	1.007	
	사회적 위치	-.054	.032	-1.659	
	정치적 태도	여당 지지	.192	.060	3.224***
		야당 지지	.055	.069	.789
	국제화 긍정적	-.071	.024	-2.990***	
빈도		1000			
R제곱		0.415			
수정된 R제곱		0.406			
F 값		49.869***			

먼저 본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R제곱의 값은 0.415, 수정된 R제곱의 값은 0.406이었다. 모형의 F값은 49.869로서 충분히 유의미한 모형으로 인정되었다.

본 모형에서 규제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통제 변수로는 성별과 연령이었으며, 독립 변수로는 정부신뢰도, 국가미래 신뢰도, 타인신뢰도, 국제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치적 태도 등이 있었다. 정치적 태도의 경우에는 여당지지 여부가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야당 지지의 경우에는 규제 신뢰와 관련이 없었다. 여당 지지자인 경우에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변수들은 모두 9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통제변수인 성별과 연령의 경우, 모형 1과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규제에 대해 더 신뢰하고 있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규제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가 높았다.

신뢰 성향에 대한 결과도 모형 1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 신뢰, 기업 신뢰, 국가 미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규제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다. 그리고 정부신뢰, 기업신뢰, 국가 미래에 대한 신뢰 중, 정부 신뢰가 규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본 모형에서 추가된 사회적 성향에 대한 변수 중에서는 정치적 태도와 국제화 긍정성 정도가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정치적 태도 중 여당 지지의 계수는 양의 값으로, 여당일수록 규제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여당 지지인 경우에는 규제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지는 않았다. 현재 정권을 지지하는가가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계수 값은 -로서, 국제화 긍정성은 규제 신뢰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화에 긍정적인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국제화에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즉, 국제화에 긍정적일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이고, 국제화에 부정적일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이라는 것으로, 국제화에 대한 태도는 규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V.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종합 결과

구분		모델 1	모델 2
통제변수	성별	+	+
	연령	-	-
	최종학력		
	월평균총소득		
	거주지		

신뢰도	정부 신뢰		+	+
	타인 신뢰			
	국가미래 신뢰		+	+
	기업 신뢰		+	+
사회적 경향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위치			
	정치적 태도	여당 지지		+
		야당 지지		
	국제화 긍정적			-

위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남성일수록 규제 신뢰도가 낮아지고 여성일 때 규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나이가 들수록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신뢰할수록 규제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국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수록 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으며, 국제화에 긍정적인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또한 현재 야당 지지인지 여당지지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규제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여당 지지일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즉 규제에 대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국가,기업 등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 정도, 국제화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 개개인의 사회적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사람들의 개인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규제에 대한 신뢰 등은 모두 연관되어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해 신뢰성이 높아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높을 수도 없다. 또한 주의 개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회의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도만 높은 것도 한계가 있다. 즉 신뢰도는 모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규제 신뢰를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한다거나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규제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규제 이외의 요소에 의해 규제 신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에 따라 규제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규제의 공정성 및 규제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규제의 공정성 및 규제의 합리성 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회적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규제 내용의 합리화를 통해서 규제 신뢰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규제 자체의 요소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규제 자체의 요소를 포함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사회적 신뢰 요소와 규제 자체의 요소 중 규제 신뢰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이수, “정보화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적 연구: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주민들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 pp.201-227, 2015.
- 박종철, 이광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기업신뢰 및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태경상저널, 제1권, 제2호, pp.1-22, 2009.
- 박홍진, “프랜차이즈 기업이 열정이 기업신뢰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2권, pp.117-123, 2016.
-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pp.45-66, 2003.
- 이양수,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pp.533-552, 2008.
- 이용규, 김지수, “신뢰의 확산이 사회적 규제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자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pp.1-24, 2014.
- 이우진, 하슬인, “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응용경제, 제18권, 제3호, pp.81-104, 2016.
- 이운수, “무사안일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정책, 제6권, 제1호, pp.29-47, 2013.
- 장용진,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 pp.189-214, 2013.
- 전대성, 권일웅, 정광호,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제2호, pp.181-206, 2013.
- 정광호, 이달곤, 하혜수,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4호, pp.181-201, 2011.
- 최성락, “규제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신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4호, pp.621-628, 2017.
- 최성락, “연령별 규제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3호, pp.586-595, 2016.
- 최성락,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규제 인식 차이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5호, pp.148-156, 2016.

최예나,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들과 선출직 기관들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 pp.69-88, 2016.

Arizti, P., Brumby, J., Manning, N., Senderowitsch, R., & Thomas, T., *Results, performance budgeting and trust in govern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2010.

Bjørnskov, C.,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3, No.1, pp.43-62, 2008.

Bjørnskov, C.,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22, pp.22-40, 2006.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Gunningham, N., Sinclair, D., “Organizational trust and the limits of management-based regulation”, *Law & Society Review*, Vol.43, No.4, pp.865-900, 2009.

Ostrom, E., “A Behavioral Approach to the Rational Choic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2, No.1, pp.1-22, 1998.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A Study of social factors on regulatory trust

Seong Rak Choi

The government did a lot of efforts to increase the trust of regulations. However, despite the vari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the level of people's regulatory trust is not much improved. One of the reasons why regulatory trust does not improve is that regulatory trust may be influenced by individual's social trust level and social tendenc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regulatory trust is affected by individual's level of trust and social tendency. Based on a survey of 1,000 people, we examined whether individual trust levels and social tendency influence the level of regulatory trust.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age, government trust, views on the future of the country, trust in corporation, recogn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political attitudes affected regulatory trust. Trust in regula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rust that individuals generally have in countries and companies, and in recogn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itself. Regulatory trust is not just a matter of regulation itself, but a factor that can vary depending on society's perception and individual's social disposition. This results suggests that to increase regulatory trust there is a need to approach problems at a higher level, for example,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society as a whole.

keywords : regulation, regulatory trust, government trust, individual trust, trust in corporation,